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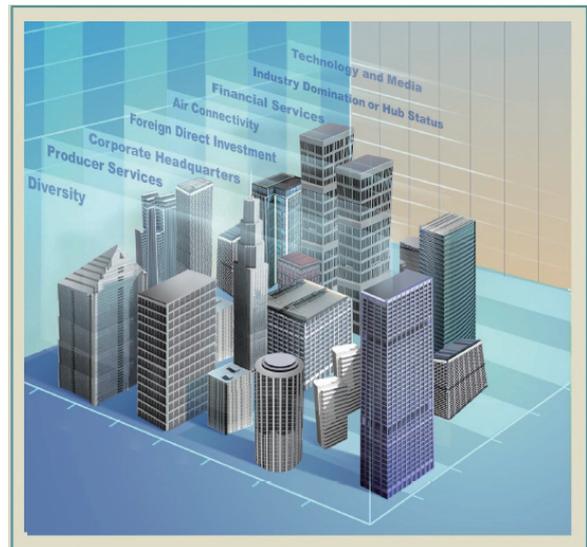
포브스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순위

위선희 연구원 요약
서울연구원 세계도시연구센터

1. 세계 도시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향

지난날 우리가 말하는 좋은 국제도시들은 일반적으로 도시 규모가 크거나 선진국의 중심에 있는 런던, 파리, 뉴욕, 도쿄 같은 도시였다. 하지만 오늘날 좋은 국제도시가 되기 위하여 도시의 규모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포브스(Forbes)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도시’ 중에서 오직 도쿄, 뉴욕, 베이징만이 ‘영향력 있는 세계 도시’ 10순위 안에 들어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도시의 영향력을 높이는 요소는 무엇일까?

포브스는 기사의 저자인 조엘 코트킨을 비롯하여 도시 지리학자 알리 모다레스(Ali Modarres), 엑센츄어(Accenture) 분석가 아론 렌(Aaron Renn), 인구 통계학자 웬델 콕스(Wendell Cox) 등이 함께 분석한 세계 도시의 영향력을 평가한 보고서 ‘Size is Not the Answer: The Changing Face of the Global City’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도시가 되는데 GDP보다는 효율성, 자본과 정보에의 접근성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다음 그림은 영향력 있는 세계 도시로 평가하기 위한 8가지 지표와 그 결과에 따른 상위 20개 도시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평가 지표

-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규모
(the amou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y have attracted)
- ▶ 기업 본사의 집중도(the concentration of corporate headquarters)
- ▶ 선점하고 있는 틈새시장 사업 수
(how many particular business niches they dominate)
- ▶ 항공네트워크 규모(air connectivity)
- ▶ 생산자 서비스의 강점(strength of producer services)
- ▶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 ▶ 기술과 미디어의 영향력(technology and media power)
- ▶ 인종적 다양성(racial diversity)

표1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 20개 도시

순위	도시명	국가명	대륙명
1위	런던(London)	영국	유럽
2위	뉴욕(New York)	미국	아메리카
3위	파리(Paris)	프랑스	유럽
4위	싱가포르(Singapore)	싱가포르	아시아
5위	도쿄(Tokyo)	일본	아시아
6위	홍콩(Hong Kong)	중국	아시아
7위	두바이(Dubai)	UAE	아시아
8위	베이징(Beijing)	중국	아시아
9위	시드니(Sydney)	호주	오세아니아
10위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미국	아메리카
10위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San Francisco Bay Area)	미국	아메리카
10위	토론토(Toronto)	캐나다	아메리카
13위	취리히(Zurich)	스위스	유럽
14위	프랑크푸르트(Frankfurt)	독일	유럽
14위	휴스턴(Houston)	미국	아메리카
16위	랜드스타드(The Randstad)	네덜란드	유럽
16위	서울(Seoul)	한국	아시아
16위	워싱턴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미국	아메리카
19위	상하이(Shanghai)	중국	아시아
20위	아부다비(Abu Dhabi)	UAE	아시아
20위	시카고(Chicago)	미국	아메리카

2. 주요 도시별 영향력 평가 및 전망

가. 세계 주요 선진도시

■ 런던(London)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 도시 1위로 자리매김한 런던은 도시가 가진 '전통적 강점'과 그 강점의 '현명한 사용'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었다. 영어권 국가이면서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오랜 역사, 유로 지역에 속해있는 규제 측면에서의

이점, 아시아와의 근접성 등이 런던의 영향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였다. 특히, 금융서비스와 미디어 분야에 강점이 있었으며 '2012 포브스지 선정 2,000대 기업(Forbes Global 2,000)'¹⁾ 목록에 있는 기업 중 68개 기업의 본사와 다양한 다국적기업의 지역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 도시의 89%로 연결되는 풍부한 항공 네트워크와 실리콘 벨리 다음으로 큰 구글 오피스를 중심으로 모여드는 3,000개 이상의 기술 스타트업 센터는 국제도시로서의 런던의 영향력을 더욱 높였다. 이러한 요소들 덕분에, 세계적으로 영국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런던의 영향력은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 뉴욕(New York)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의 본고장인 뉴욕은 도쿄의 4배, 런던의 10배 규모의 주식거래와 미디어, 광고, 음악 산업의 국제적 리더로서의 입지를 바탕으로 높은 영향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도시이다. 뉴욕은 패션과 럭셔리 비즈니스의 중요한 수도이기도 하며 다양한 랜드 마크로 매년 다른 어느 도시보다 많은 관광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런던에 비해 높은 금융적 규제와 낮은 아시아와의 접근성 때문에 영향력 평가 보고서에서 런던보다 2점 낮은 40점을 받아 세계 2위의 영향력 있는 도시로 평가되었다.

■ 파리(Paris)

파리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높은 경제적 지배력과 많은 국제적 선도기업의 본사를 유치하고 있다는 이점²⁾을 가지고 있어 도시의 영향력 평가에서 3위를 받았다. 하지만 프랑스의 상대적인 경기침체로 세계에서 행사하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낮아지고 있어 앞으로 더욱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파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뮌헨, 로마, 함부르크 등의 다른 유럽 도시에도 적용되면서 높은 도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영향력 측면에서는 10위 이내에 들지 못하였다.

1 세계화 및 세계도시 리서치 네트워크(GaWC)의 '2012 지휘통제지수(Command and Control Index)'를 기반으로 한 다국적기업 지사 부문 순위는 기업의 크기, 재무 성과, 포브스지 선정 2,000대 기업(Forbes Global 2,000)지사의 총수로 구성된다. 런던은 전체 3위

2 파리는 세계화 및 세계도시 리서치 네트워크(GaWC)의 '2012 지휘통제지수(Command and Control Index)'에서 5위를 차지했다.

■ 도쿄(Tokyo)

지난 세기 동안 아시아의 선도 도시이자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도쿄는 탄탄한 국내기업의 국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평가에서 5위를 받았다. 하지만 탄탄한 국내의 다국적 기업이 있다는 점 외에 다른 측면에서는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작았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경쟁 심화, 고령화 등의 인구학적 변화, 낮은 인종적 다양성 때문에 일본이 세계적으로 행사하는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다.

나. 아시아의 급부상 도시

■ 싱가포르

동아시아의 선도 세계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싱가포르는 5백만밖에 되지 않는 인구수에 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본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영향력 있는 도시 4위로 평가되었다. 저자는 싱가포르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한 또 다른 이유로 전통적으로 영국의 정치 및 법 체계를 따랐다는 점을 꼽았다. 이 덕분에 싱가포르는 세계은행(World Bank)으로부터 가장 비즈니스 하기 좋은 아시아 도시로 평가되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평균 359개의 국제사업을 유치하며 롤랜드 버거(Roland Berger)의 '유럽 기업이 동아시아 지사를 설립할 때 선도되는 지역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자리를 두고 홍콩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금융 서비스 지표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측면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가졌다고 평가되었다.

■ 중국의 도시들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1994년 5%에서 2012년 14%로 증가하였다. 오래전부터 아시아 태평양 최대 규모의 금융센터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키워온 홍콩은 이번 보고서에서 6위로 평가되었다. 홍콩에는 세계 주요 투자은행, 자산관리 회사, 보험사 대부분의 아시아 지부가 있다.

중국 정치의 중심인 베이징시에는 대부분의 대형 국영기

업의 본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국 엘리트 교육기관과 혁신적인 기업의 본고장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이번 보고서에서 8위로 평가되었다. 그 외에도 중국 상하이시와 선전시는 홍콩의 3배에 달하는 무역량과 주식 거래량을 바탕으로 점차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국의 도시들은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문화적 적합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중국의 투자은행 상하이 국제군안증권(Guotai Junan Securities)의 매니저가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에서 밝힌 내용을 인용하며 당분간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여 세계리더자리를 꿰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두바이(Dubai)

미디어를 통해 보인 중동 도시의 파괴와 혼돈의 이미지와는 달리 두바이는 세계 영향력에서 7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바이는 높은 항공네트워크 규모와 인종적 다양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터미널을 가진 두바이 공항은 세계 도시 93%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 노선을 제공하며, 두바이의 중심적 위치와 기업 친화적인 분위기 덕분에 많은 기업이 중동 본사를 지을 때 두바이를 선호하는 지역으로 꼽는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또한 두바이는 문명의 교차로로서 주민의 86%가 외국 태생일 만큼 다른 국제도시와는 견줄 수 없는 인종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두바이와 함께 UAE의 또 다른 주요 도시이자 수도인 아부다비는 미래 성장 가능성과 세계적 영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로 평가되며 20위에 자리매김하였다.

■ 그 외 아시아 도시들

인도의 거대도시인 델리와 뭄바이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와 함께 영향력 순위 30위 내로 평가되었으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상파울루가 23위의 영향력 있는 도시로 평가되었다. 저자는 이 지역들이 20위 안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 교량, 사법시스템 등 적절한 인프라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 북미지역(North America) 도시

저자는 주요 평가지표 중 ‘생산자 서비스의 강점’과 ‘인종적 다양성’은 그 도시가 특정 분야의 사업수행을 위해 꼭 가야 하는 장소인지 즉, 필수도시(necessary city) 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라 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2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의 평가는 다른 도시경쟁력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가 높게 평가되면서 공동 10위를 차지하였다. 이밖에 대표적인 미국의 대표 도시들인 시카고, 휴스턴, 워싱턴도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되었다. 캐나다의 토론토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와 함께 공동 10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진출을 위한 필수도시이다.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동의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수익과 영향 측면에서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분야에 강점이 있는 도시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쇠퇴와 고용률 감소, 두 번째 주력 사업군인 항공우주 분야의 쇠퇴로 이 지역의 도시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니산(Nissan), 옥시덴탈 석유(Occidental Petroleum), 도요타(Toyota) 등의 주요 기업들이 더욱 기업 친화적인 장소를 찾아 로스앤젤레스를 점차 떠나고 있다.

■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San Francisco Bay Area)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는 로스앤젤레스와 달리 기술 산업에의 강점을 바탕으로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도시로 평가되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어는 미국의 다른 도시에 기반을 둔 뛰어난 기술 전문가와 기업들에게도 기술적 본고장으로 인식되고 있고 여러 나라의 기술 전문가들도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사업지를 옮겨야만 하는 분위기를 풍기는 필수도시가 되고 있다고 한다.

■ 캐나다 토론토

안정적인 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캐나다의 수도 토론토는 캐나다에 투자하고자 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거점이 되면서 도시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토론토의 높은 인종적 다양성 또한 영향력 평가 10위의 기반이 되었다.

■ 그 외 미국 도시들

미국에는 영향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가 있다. 영향력이 증가하는 도시에는 휴스턴, 워싱턴 D.C가, 감소하는 도시에는 시카고가 있다. 14위로 평가된 휴스턴은 미국 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거대한 수출규모, 인종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되었고 워싱턴 D.C는 최근 증가한 항공 우주와 기술센터 분야의 자본을 바탕으로 그 영향력을 점점 키우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시카고는 어떤 산업에서도 지배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며 19세기 말 다양한 경제분야를 갖춘 도시라는 명성에도 영향력 평가에서 20위로 평가받았다.

라. 서울(Seoul)

한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한국의 다국적 기업의 입지가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도시로 간주 되고 있는 서울은 이번 보고서에서 16위로 평가되었다. 저자는 서울이 수도권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가치 평가(Value of Share Trading: Stock Markets in Metropolitan Area Exchanges)에서 7위를 차지한 것과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의 영향력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한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영향력 증가를 기반으로 지역적, 국제적 허브로서의 영향력을 점점 키워나갈 것이라 평가되었다.

하지만 서울의 미디어 부문 중에서 신문, 방송 뉴스 분야는 주목받지 못했으며, 비록 최근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런던이나 뉴욕 같은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은 인종적, 문화적 편협성은 일본이 아시아 경제를 지배할 때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일본이 아시아 도

시를 지배할 때와 달리 앞으로는 심각한 책임을 불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외국 대기업의 지역 본부 수가 적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삼성과 현대 같은 주요 국제적 기업 덕분에 포브스지 선정 2,000대 기업 본사의 총수에서 파리와 함께 4위에 자리매김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몇 개의 외국 대기업만이 지역본부를 서울에 두고 있다.

3. 결론

포브스지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평가는 삶의 질 측면을 강조한 머서(Mercer) 컨설팅 사의 삶의 질 조사(The Mercer Quality of Living Survey)나 모노클(Monocle) 잡지의 삶의 질 조사(The Monocle Quality of Life Survey)와는 차별화가 된다. 머서와 모노클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한 빈이나 코펜하겐은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이나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동력보다는 안락한 생활에 대한 평가로 경제적 활력과는 차이를 보여준다. 반면 포브스의 평가는 효율성, 역사적 강점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경제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에 더욱 집중하였다. 저자는 '국제도시의 미래는 가장 크거나 빠른 성장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정통하며 강한 역사적 족보를 가진 도시에 속할 것'이라는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도시의 영향력에 효율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족보, 즉 역사적으로 우수했던 강점들이 미래 발전에도 관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역사적 관성을 런던, 뉴욕, 파리가 각 국가의 영향력 감소에도 여전히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1~3위로 평가될 수 있었던 주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흥국가들도 이러한 역사적 관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다국적 기업 유치, 인종 다양성 확보, 문화적 편협성 회복 등의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 조언하고 있다. 

참고 문헌

- Joel Kotkin, 2014, The Most Influential Cities in the World, 2014.8.14. Forbes, <http://www.forbes.com/sites/joelkotkin/2014/08/14/the-most-influential-cities-in-the-world/print/>.
- Joel Kotkin, et al., 2014, Size is Not the Answer: The Changing Face of the Global City, Civil Service College, Singapore
- The Marmot's Hole, Seoul 16th on Forbes 'The Worlds Most Influential Cities List', 2014.8.21. http://www.rjkoehler.com/2014/08/21/seoul-16th-on-forbes-the-worlds-most-influential-cities-list/#disqus_thread